

# 전통 전지예술품을 꽃피우는 '애심문원'

—길림시 만족 전지 무형문화재 전승인 화려의 이야기



길림시급 무형문화재 전승인 화려

'애심문원' (愛心文園) 창문으로 비쳐드는 오후의 햇빛이 따사롭다. 가위로 종이를 자르고 연필로 그림을 그리며 부스럭거리는 소리, 가느다란 종이가 흘러내리는 소리... 화씨전지 길림시급 무형문화재 전승인 화려는 전통전지예술품에 얽힌 채 천천히 학생들에게 다가간다. 그들이 종이를 오리는 것을 보면서 수시로 작은 소리로 몇마디 당부하거나 가위 시범 지도를 한다.

그녀에게 전지(剪紙)예술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기이고 애심문원에 자주 오는 사람들은 친구로서 시간이 오래되면 한가죽이 되는 것이다.

화려는 길림시 창읍구 좌가진 하만자촌의 만족 전지예술품에서 태어났다. 하만신마비가 그녀에게서 정성인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알아갔지만 대신 그녀는 피땀에 녹아든 전지예술품을 이어받았다.

그녀는 3살 때부터 전지를 배우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부모를 따라다니며 전통 전지 도안과 무늬의 유래 등 이야기를 들었다. 작은 손으로 큰 철가위를 들고 종이 조각들을 모양이 각이한 도안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나이가 들면서 그녀의 전지예술품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전지예술품 역사와 문화적 함의에 대해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14살 때 화려는 집에 전지교실을 열고 자기네 마을과 이웃마을의 100여명 아이들에게 창문꽃과 '희'자를 올려내는 방법을 무료로 가르쳤다.

입소문을 타고 '화려전지'는 곧 현지에 파다히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나 경사가 있을 때마다 그녀를 찾아 작품 몇점을 구해갔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지예술품을 리

해시키고 이 기예를 전승시키는 것은 저의 어릴 적 꿈이자 제가 계속 열심히 노력해온 원동력입니다."

화려는 1995년에 처음으로 영길현 문화관에서 개최된 여성애국교육미술전람회에 참가하여 상을 받은 것이 본인에게는 큰 고무격려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후 그는 각종 전람회에 참가하였고 개인작품전도 열었는데 그의 이름과 작품은 점차 문화예술계 인



화려의 전지작품

사들과 많은 전지애호가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1998년, 21세의 화려는 길림성민화청으로부터 '민간예술가' 칭호를 수여받았는데 친척과 친구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달려와 그녀를 축하해주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친구들이나 귀필머리가 나날이 희끗희끗해가는 부모님을 보면서 그녀는 불안과 망연함에 빠져드는 시기도 있었다.

심사숙고 끝에 화려는 결심하고 도시에 가서 재능을 발휘할 더 큰 무대를 찾았다.

2007년 화려와 그의 어머니는 저금 2,000원을 찾아가지고 길림시 창읍구 동국자가에서 상수도 하수도가 없는 21평방미터의 차고를 임대했다.

다년간 화려의 지도를 받은 장애인 학생은 수백명에 달한다. 사랑으로 넘치는 '애심문원'을 거친 화려의 학생들이 각지에 분포되어있는데 그중에는 만주 전지 기술 전승의 '문화사절'이 되어 외국에 뿌리를 내리고 '서양제자'를 모집하여 중화문화의 세계 진출을 추진하고 문명 상호 참조를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도 있다.

화려는 <봄놀이>, <56개 민족은 한집안> 등 800여쪽의 중요한 전지작품을 창작하였다. 그중에서 <기대>는 2008년 북경올림픽조직위원회에 의해 소장되었으며 <생명>, <해빛>, <꿈>은 2010년 상해엑스포조직위원회에 의해 소장되었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돐을 맞아 학생들과 공동으로 창작한 15미터 길이의 작품 <장백영령>은 길림시문화예술계연합회로부터 2020-2021년도 문예작품 우수 종목으로 선정되었다.

화려는 길림성자강모범, 상해엑스포 '엑스포 스타', 길림시 '강성 좋은 사람' 등의 영예를 따냈다.

"전지작업은 실험으로부터 서서히 애정으로 변하는 과정으로서 사람들은 여기에서 끈기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정신적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화려는 말한다.

앞으로 그녀는 계속해서 학생들과 '애심문원'을 중심으로 인맥을 넓히고 학생 작품의 문화가치를 깊이 발굴하며 창작 능력을 제고하고 우수한 작품을 만들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한다. / 송화강넷

## 길림화학섬유, 새해 첫달부터 희소식

길림화학섬유그룹의 1월 생산액이 15억 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성장했다. 특히 탄소섬유 복합재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신속히 증가되어 탄소섬유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하며 첫달부터 튼튼한 한걸음을 내디뎠다.

길림화학섬유는 공급과 판매의 일체화, 생산과 판매의 심층 융합을 견지하고 생산, 판매 일군을 조직하여 시장에 심입하고 고객을 위해 봉사하며 점유율을 확대했는바 1월 수출 외화 획득이 전년 동기 대비 16% 성장했다.

과학연구원, 기업과 연합하여 과학기술 난제 해결을 전개하여 탄소섬유산업의 성과 전환을 추진하였다.

T700, T800 제품은 성숙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실현하고 T1000, T1100 및 M40 모델 계열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고급 응용 분야 시장으로 매진하였으며 '원사, 탄소사 판매'에서 '재료 제품 판매'로 전환하여 원사, 탄소사 자체 리용률 각각 89%와 42%를 실현했다.

탄소섬유 빌라 압출판은 국내 풍

력발전 분야의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에 달하며 국내 무인기 주요 기업의 일부 주력 기종의 주요 탄소섬유 구조물을 제작하여 '저공경제' 분야에서의 길림화학섬유의 새로운 위세를 구현했다.

인조견사 전통 방직, 연속 방직 이중로선의 힘을 발휘하여 1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 성장했다. 아크릴섬유 화용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보급되어 60개 산업기차사를 구축하고 제품 차별화율이 35%에 달해 면방직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이 밖에 길림화학섬유가 지난해 투입한 인조견사 1만톤, 탄소섬유 3만톤, 화용 15만톤 등 8개 항목은 생산능력이 점차 방출되어 새로운 증가방향을 형성하였다.

탄소섬유 제로탄소 제품 산업단지 건설이 전면적으로 가속화되고 풍력 발전 날개, 무인기, 프로펠러, 배터리 박스 바닥 보호판 등 프로젝트 개발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5만톤 생물인조견사 1단계 사업은 생산 준비에 들어가 2월말 생산라인을 가동할 예정이다. / 송화강넷

## 두 설상 종목 국가대표팀 길림시에서 집중훈련

올해 3월 8일부터 15일까지 이 팔리아 프리노에서 열리는 제 12회 세계동계스페셜올림픽(特奧會)을 맞아 중국 스페셜올림픽 크로스컨트리스키(越野滑雪), 스노우슈즈(雪鞋走) 종목 국가대표팀은 이미 정식으로 집중훈련을 시작했다.

중국장애인연합회의 허락을 거쳐 지난 2월 6일부터 3월 3일까지도 합 38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길림시시설경기훈련센터에서 근 한달간의 훈련을 진행중이다.

2월 7일, 길림성장애인연합회 훈련 지도자들은 길림시시설경기훈련센터 찾아 지도원과 운동선수들의 훈련 및 생활 상황에 대해 현지 조사 연구를 진행했다. 그들은 선수들의 훈련 진전과 생활 상황을 상세히 알아보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해 최고의 컨디션으로 스페셜올림픽을 맞이하라고 격려했다.

같은 날, 제 12회 세계동계스페셜올림픽 준비위원회가 훈련센터에서 소집되었다. 회의는 훈련준비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포지하고 훈련방안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과학적으로 준비하여 모든 선수들이 경기

에서 최상의 수준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림시시설경기훈련센터측은 이번 훈련에 깊은 중시를 돌렸다. 스페셜올림픽 참가 선수들이 경기전 마지막 동계훈련 기간에 전력을 다해 스퍼트(冲刺)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센터는 알심 들여 계획하고 적극 포지했으며 선수들의 실제 상황과 결부하여 상세한 사업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1월부터 센터는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스노우슈즈 훈련장을 새로 부설해 훈련 조건이 최상의 컨디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길림시시설경기훈련센터는 또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빙설운동기구 보수훈련실을 합리하게 배치하고 스페셜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식단을 과학적으로 배합하여 선수들이 집중훈련 기간에 전방위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확보하였다.

제반 사업은 모두 스페셜올림픽 훈련 기준에 따라 엄격히 진행, 전력을 다해 제 12회 세계동계스페셜올림픽 참전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하였다. / 송화강넷

## 교하, 처음으로 월동 두루미 군체 발견



최근, 교하시립업국은 감시측정 구역내에서 7마리의 두루미를 발견하였다. 두루미들은 때로는 눈밭을 산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중을 날아이기도 했으며 때로는 호수에서 물을 마시기도, 때로는 풀밭에서 먹이를 찾기도 했다. 교하 관할지내에서 월동 두루미 군체가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초, 본 지역내 겨울 물새의 군체 상황 및 생태 분포를 제때에 파악하고 평가하여 물새 자원 보호와 관리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하시립업국은 월동 물새 동시 관측 업무를 전개하였다.

관측일군들은 지상 관측과 드론 관측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관측구역내에서 5일간 관측을 했다. 교하시립업국 림장제판공실 주임

류아용의 소개에 따르면 그들의 감시측정구역은 주로 신봉가두 법하연촌, 흥광촌, 하남가두 류수림자촌 등 사방 500헥타르의 호수구역내에 집중되었다.

일일 관측 시간은 평균 2시간, 관측 코스는 2.5킬로미터로 설정했다. 관측을 통해 그들은 이 두루미의 주요 먹이 원천이 호수 주변 풀밭의 풀씨, 옥수수밭에 남아있는 옥수수 알갱이이며 수원은 얼지 않은 송화호라는 것을 발견했다.

한편, 교하시립업국은 감시측정 로선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감시측정 범위를 확대하며 감시측정 시간을 연장하여 월동 두루미의 분포 상황과 이동법칙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철새 보호를 과학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 송화강넷

## CCTV 기록채널 《항일민족영웅 양정우》방영

길림시당위 선전부와 길림시사지오텔레비전방송국이 연합으로 출품한 대형 역사재제 다큐멘터리 《항일민족영웅 양정우》가 지난 2월 13일과 14일, CCTV-9 '이야기 중국'과 길림위성 TV에서 매일 2회씩 방송되었다.

양정우 장군은 1905년 2월 13일 생으로 올해 2월 13일은 그의 탄생 120주년 기념일이다.

1940년 정월 16일, 양정우 장군은 장렬하게 순국했다. 지난 2월 13일은 마침 정월 16일로 양정우 장군이 순국한 지 85주년이 되는 날이

였다. 이 기념할 만한 날에 양정우 장군이 동북항일련군 제 1로군을 이끌고 백산협수 사이에서 전투한 이야기를 되새겨 보노라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양정우 장군의 영웅사적을 기억하고 흥색 열매를 이어가며 새로운 시대에 동북항일련군 정신을 더욱 잘 전승하게 될 것이다.

프로젝트 감독 손효위는 "이 다큐멘터리는 현재 양정우의 영웅일생을 구가한 가장 전면적인 작품으로서 돌도 없는 선택이다."라고 평가했다. / 송화강넷

◀ 반석시 정우광장의 양정우 장군 동상

